20대부터 70대까지 · 5대 리스크 보장 점검 가이드

보험, 나이마다 지켜야 할 것이 다릅니다

건강 · 상해 · 노후 · 상속 · 손해
통계로 보는 우리 가족의 리스크, 그리고 보장점검이 필요한 이유

건강 상해 노후 상속 손해

Q1. 암 치료비, 건강보험이 다 해결해 줄까요? → 4쪽

Q2. 은퇴 후 부부 생활비, 매달 얼마나 모자랄까요? → 6쪽

Q3. 건강보험료,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요? → 7쪽

Q4. 내가 없을 때, 가족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? → 9쪽

Q5. 상속세,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낼 수 있을까요? → 10쪽

→ 답은 이 가이드 안에 있습니다

1.8분

1.8분마다 1명, 새로운 암 환자가 생깁니다
2023년 한 해 신규 암환자 28만 8,613명

보건복지부·중앙암등록본부 「2023년 국가암등록통계」(2026.1)

만든이 **삼성생명 강남리젤지점 FC 신의철**

공공 통계 ·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이 정리한 자료입니다. 삼성생명의 공식 자료가 아니며,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.

OVERVIEW · 한눈에 보는 5대 리스크

00 누구에게나 있는 5가지 리스크, 나이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

질병·사고·긴 노후·상속·배상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. **나이에 따라 커지는 리스크가 다르고, 먼저 볼 것도 그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.**

건강
64.9%
건강보험 보장률(2024). 나머지 35.1%는 본인 부담[6]
건강보험 밖의 비용: 비급여·간병·소득 공백

상해
40%
응급실 손상 중 추락·낙상 비중[10]
사고 후 '일할 수 없는 시간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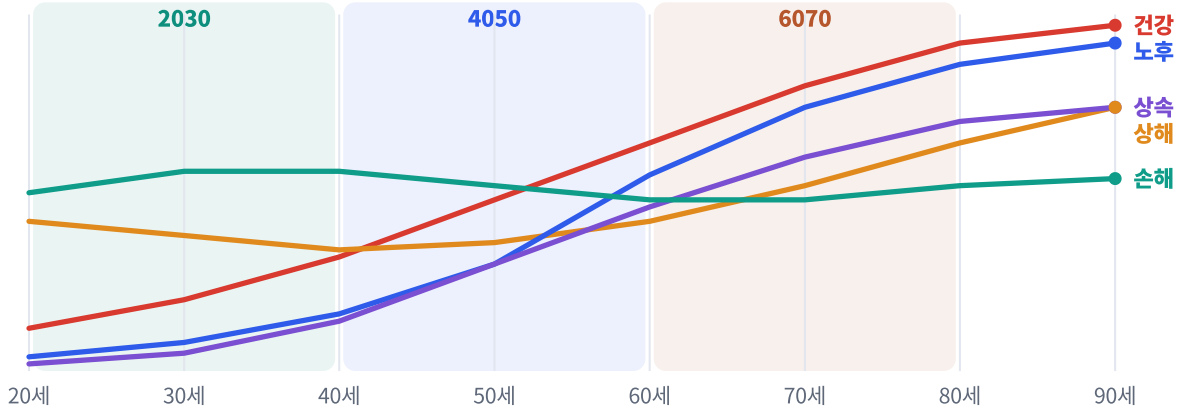
노후
39.7%
노인 소득빈곤율, OECD 37개국 중 최고(평균 14.8%)[14]
부부 평균 연금으로는 월 약 150만 원 부족

상속
6.2%
2025년 사망자 중 상속세 과세 비율. 2010년 약 1%[15]
세금은 현금으로, 6개월 안에

손해
19.4만 건
2025년 교통사고, 하루 약 530건[11]
민사·형사 책임은 따로

생애 리스크 지도

연령대별 상대적 부담을 표현한 개념도(통계 수치 아님) · 우리 가족은 어느 구간에 있나요?



이 자료의 원칙

- 모든 숫자에는 확인 가능한 출처가 있습니다(마지막 출처 목록).
- 이 자료는 기존 보험 해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. 유지·조정·보완을 판단할 근거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.
- 특정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. 가입 여부와 시기는 본인이 결정합니다.

출처 [6] 진료비 실태조사 2024 · [10] 손상통계 2025 · [11] 교통사고 통계 2025 · [14]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5 · [15] 국세청 통계(머니투데이)

만든이 : 삼성생명 강남리젤지점 FC 신의철

RISK 01 · 건강·상해 ① 암은 얼마나 흔한가

01 1.8분마다 1명, 새로운 암 환자가 생깁니다

2023년 한 해 새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**28만 8,613명**, 하루 약 790명입니다. 1999년 10만 명 수준에서 **24년 새 약 2.8배**로 늘었습니다. 지금 암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273만 명, 기대수명까지 산다면 **국민 10명 중 4명(41.2%)**이 암을 경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

28.9만 명
2023년 신규 암환자
하루 약 790명 · 전년 대비 2.5%↑[2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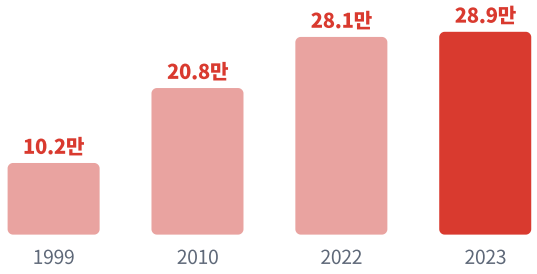
273만 명
암 유병자
국민 19명 중 1명[2]

41.2%
평생 암 발생 추정
남 44.6% · 여 38.2%[23]

50.4%
신규 환자 중 65세 이상
2023년 14만 5,452명[50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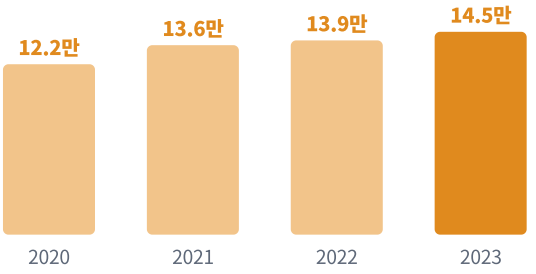
신규 암환자 수, 계속 늘고 있습니다

연도별 암 발생자 수(명)[50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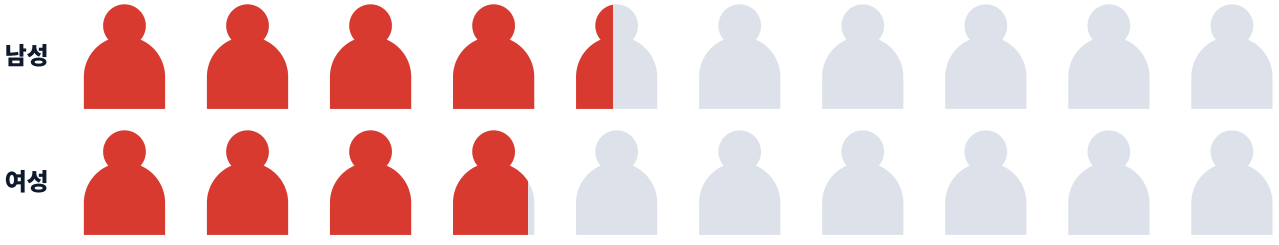
65세 이상 신규 암환자, 3년 새 19% 증가

2020~2023년, 명[50]



기대수명까지 산다면, 10명 중 몇 명이 암을 경험할까요?

남성 44.6%(약 2명 중 1명), 여성 38.2%(약 3명 중 1명)[1] · 4인 가족 모두 기대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평균 약 1.6명꼴(41.2% × 4, 단순 환산)



핵심 포인트

환자 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입니다. 오래 살수록 암을 만날 가능성은 커집니다.

인구 구조 영향을 뺀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23년 10만 명당 522.9명으로 최근 비슷한 수준이지만, 고령 인구가 늘면서 실제 환자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.[50]

출처 [1] 국가암정보센터 · [2] 국립암센터 웹진 · [23] 2023 국가암등록통계 참고자료 · [50] 보건복지부 2023 국가암등록통계 보도자료

RISK 01 · 건강·상해 ② 가상 사례로 보는 진짜 비용

01 45세 가장이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1년 가계부로 본 '진짜 비용'

아래는 공개 통계·비용 사례를 조합해 만든 **가상 사례**입니다. 병기·치료 방법·병원에 따라 실제 비용은 크게 달라집니다. 핵심은 **병원비만이 비용이 아니라는 것**입니다.

진단 후 1년 동안 나가는 돈	A. 급여 치료 중심	B. 로봇수술 + 비급여 면역항암제를 함께 쓴 경우
항암 치료비 A: 면역항암제 급여 적용(5%) / B: 급여 기준 밖 사용(비급여)[26]	365만 원	7,302만 원
수술 B: 로봇수술 선택 시 평균[28]	급여 본인부담(소액)	1,000만 원
간병비 2개월 × 월 약 330만 원[29]	660만 원	660만 원
소득 공백 가정: 월 소득 400만 원 × 휴직·치료 6개월	2,400만 원	2,400만 원
1년 합계(실손 적용 전)	**3,425만 원**	**1억 1,362만 원**
실손 보상 추정 **4세대 실손 가정: 급여 80%·비급여 입원 70% 보상, 통원 회당 20만 원 한도[69]**	**– 약 292만 원** **급여 본인부담 365만 원의 80%**	**– 약 1,040만 원** **통원 17회 × 20만 원 + 수술 700만 원**
실손 적용 후 남는 부담(약)	**3,133만 원**	**1억 322만 원**

가상 사례 · B는 로봇수술과 급여 기준 밖 면역항암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를 가정 · 면역항암제 3주 간격 연 17회 통원 가정 · 급여 수술 본인부담·검사비·교통비 미포함 · 소득·휴직 기간은 가정값 · 가입 세대·약관에 따라 실손 보상액은 달라짐

핵심 포인트

실손을 적용해도 A에서 약 3,133만 원이 남고, 그중 약 98%는 간병비·소득 공백입니다.

실손은 병원비를 돌려주지만 간병인 비용과 멈춘 월급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B처럼 고가 통원 치료는 회당 한도 때문에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.

내 증권에서 확인할 것

실손 세대 · 한도
몇 세대 상품인지, 비급여 통원 회당 한도와 자기부담률

암 진단비 금액
가입 금액과 유사암 지급 비율, 감액 기간이 있는지

간병 관련 담보
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는지, 지급 일수 한도는 얼마인지

우리 집 계산 : 월 소득 _____ 만 원 × 치료 기간 _____ 개월 = 소득 공백 _____ 만 원

RISK 01 · 건강·상해 ③ 뇌·심장 질환

01 뇌·심장 진단비는 '이름'보다 '보장 범위'가 중요합니다

심장질환은 사망원인 2위, 뇌혈관질환은 4위입니다. 뇌혈관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**117만 명**, 심장질환은 **183만 명**입니다. 그런데 진단비가 **어느 질병까지 보장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달라집니다.**

117만 명
뇌혈관질환 진료인원(2022)
1인당 진료비 256만 원[31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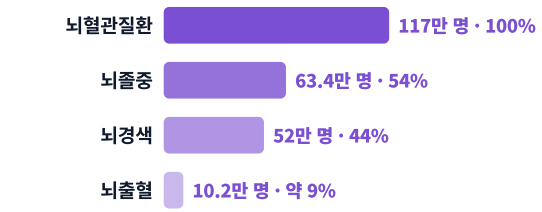
183만 명
심장질환 진료인원(2022)
진료비 2.54조 원, 4년 새 38.5%↑[32]

2위·4위
심장·뇌혈관질환 사망 순위
2024년 사망원인[4]

40~46%
20~30대 여성 뇌혈관질환 증가율
2018→2022 · 남성 23~30%[31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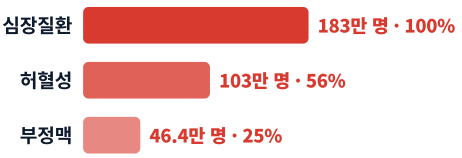
뇌혈관질환 보장 범위별 대상 환자 수

2022년 진료인원[31]



심장질환 보장 범위별 대상 환자 수

2022년 진료인원[32] · 급성심근경색은 허혈성의 일부



핵심 포인트

'뇌출혈'만 보장한다면, 뇌혈관질환 진료 환자 중 약 9%만 해당합니다.

부정맥(I47~I49, 46만 명)은 허혈성 심장질환(I20~I25) 진단비 대상이 아닙니다. 진단비의 이름이 아니라 약관의 질병코드(예: I60~I69, I20~I25) 범위를 확인하세요. ※ 한 해 진료인원 기준 단순 비교이며, 실제 보험금 지급 확률은 아닙니다.

약관에서 확인할 질병코드 범위

뇌 쪽 범위
뇌출혈만인지, 뇌경색까지인지, 뇌혈관질환(I60~I69) 전체인지

심장 쪽 범위
급성심근경색만인지,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(I20~I25)인지

그 밖의 심장 · 혈관
부정맥·심부전이 포함되는지, 혈관 중재술·수술 담보가 있는지

나이대별 체크포인트

2030
- 20~30대 뇌혈관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(여성 40~46%↑)
- 기존 진단비의 질병코드 범위 확인

4050
- 고혈압·당뇨 등 대사질환이 오래 쌓이면 혈관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
- 기존 진단비가 뇌출혈·급성심근경색만인지 확인

6070
-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60%가 60~70대(2019)[32]
- 갱신 조건·만기와 수술비 보장 점검

RISK 02 · 노후 ① 은퇴 부부의 생활비 공백

02 은퇴 부부 한 달 생활비 298만 원, 평균 연금으로는 절반도 안 됩니다

50세 이상이 생각하는 은퇴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**월 298.1만 원**, 최소 생활비는 216.6만 원입니다. 그런데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은 모두 합쳐 **1인 월평균 73.7만 원**, 중간값은 49.7만 원입니다. **부부가 둘 다 평균만큼 받아도 147.4만 원, 적정 생활비의 49%입니다.** 실제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76.0만 원으로, 스스로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보다도 40만 원가량 적게 쓰고 있습니다[87].

298.1만 원
은퇴 부부 적정 생활비(월)
최소 216.6만 원[12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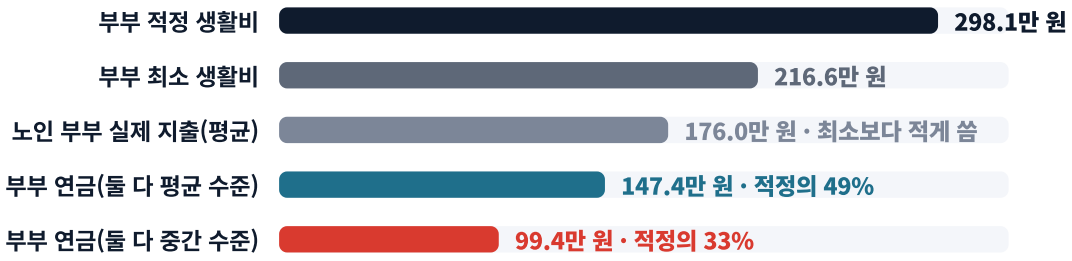
73.7만 원
65세 이상 1인 연금(월평균)
모든 연금 합산 · 중위 49.7만 원[81]

55.6%
60~64세 연금 0원
은퇴 후 연금 개시 전 '소득 공백'[81]

176.0만 원
노인 부부 실제 소비지출(월)
2023년 노인실태조사[87]

은퇴 부부, 필요한 돈 vs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 (월)

적정·최소: 국민노후보장패널 제10차[12] · 실제 지출: 2023 노인실태조사[87] · 연금: 65세 이상 1인 월평균 73.7만 원·중위 49.7만 원 × 2인(부부 모두 수급 가정)[81]



부부 연금 수준 (월, 부부 합산)	적정 생활비 대비 부족	최소 생활비 대비 부족	20년이면 (적정 대비)
둘 다 평균 수준 73.7만 원 × 2 = 147.4만 원	월 150.7만 원	월 69.2만 원	약 3억 6,168만 원
둘 다 중간 수준 49.7만 원 × 2 = 99.4만 원	월 198.7만 원	월 117.2만 원	약 4억 7,688만 원
우리 부부 예상 연금 합계 _____ 만 원	월 _____	월 _____	_____

부부 모두 해당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(65세 이상 수급자 통계 기준) · 물가상승·세금·건보료 미반영 · 20년 = 월 부족액 × 240개월

핵심 포인트

부부가 평균만큼 연금을 받아도 매달 약 150만 원,
20년이면 약 3억 6천만 원이 모자랍니다.

게다가 60~64세의 55.6%는 연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[81].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지만 실제 은퇴는 56세로 9년 빠르다는 조사도 있어[85], 연금이 나오기 전 '소득 공백'까지 준비해야 합니다.

RISK 02 · 노후 ② 오르는 사회보험료

02 사회보험료는 계속 오르고, 은퇴 후에는 혼자 냅니다

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**준비금이 2029년 소진**될 것으로 봤고, 연구 전망에서는 건강보험료율이 **2060년 약 2배**, 장기요양보험료율은 **2055년 2.7~3.6배**가 필요합니다. 건보료는 소득세법상 소득에 매기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[73], **어떤 소득에 건보료가 붙는지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**

2배
건강보험료율 2060년 전망
2024년 7.09% → 14.39%[70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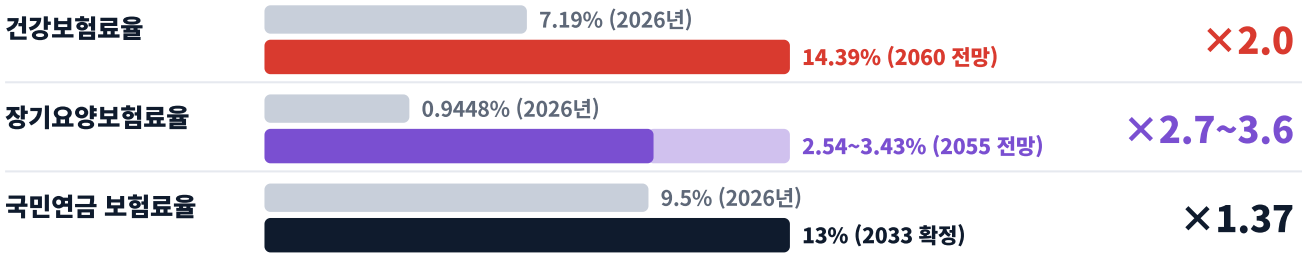
3.6배
장기요양 2055년 전망
현행 대비 2.7~3.6배[71]

2029년
건보 준비금 소진 전망
현행 유지 시[36]

13%
국민연금 보험료율(2033)
2026년 9.5%에서 확정 인상[35]

지금 vs 앞으로: 소득에서 떼는 비율

근로자·사용자 합산 · 회색 = 현재, 색 = 전망/확정 · 전망치는 연구 추계이며 확정 요율 아님(법정 건보료율 상한 8%)[34,35,70,71]



은퇴 후 받는 돈	소득세	지역 건보료(현재 기준)
국민연금	연금소득 과세	소득의 50% 반영[37]
이자·배당	금융소득 과세	연 1,000만 원 초과 시 반영
보장성 보험금 사망·진단·수술	과세 대상 아님[18]	미반영[73]

핵심 포인트

보험료율은 계속 오르고,
건보료를 매기는 소득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
건보료는 소득세법상 소득에 매기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). 부과 기준과 세법은 바뀔 수 있어 시점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출처 [18] 소득세법 · [34][35] 사회보험료율 · [36] 국회예산정책처 · [37] 은퇴 후 건보료 · [38] 비과세 요건 · [70][71] 장기 전망 · [73] 건보법 시행령 · [75] 유동화

RISK 02 · 노후 ③ 우리 집 연금 계산

02 평균은 앞에서 봤습니다, 이제 우리 부부 숫자로 적어 보세요

노후 소득은 **국민연금 · 기초연금 · 퇴직연금 · 개인연금 · 주택연금**을 쌓아 만듭니다. 참고 수치는 통계상 평균입니다.
본인과 배우자의 예상액을 각각 적고, 목표 생활비와 비교해 매달 부족액을 확인하세요.

노후 소득원 (월)	참고: 평균	우리 부부(만 원)
① 국민연금 · 본인	노령연금 평균 약 68.0만 원 · 20년 이상 112.1만 원[13] '내 곁에 국민연금'에서 예상액 조회	_____
② 국민연금 · 배우자	65세 이상 수급자 평균 49.1만 원[81] 배우자 가입기간이 짧으면 크게 줄어듦	_____
③ 기초연금	수급자 평균 30.0만 원[81] · 2026년 최대 부부 55만 9,520원[82] 소득인정액 기준,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	_____
④ 퇴직연금(IRP)	87%가 일시금으로 받음(연금 수령 13%)[84]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경감	_____
⑤ 개인연금(연금저축·연금보험)	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연 900만 원 한도[18]	_____
⑥ 주택연금·기타	주택연금 평균 약 127만 원[83] · 임대·근로소득 등	_____
합계 (A)	참고: 부부 둘 다 평균 수준이면 147.4만 원	_____
목표 생활비 (B)	부부 적정 298.1만 원 · 최소 216.6만 원[12] 노인 부부 실제 소비지출 176.0만 원[87]	_____
매달 부족액 = B − A	**참고: 평균 부부, 적정 기준 월 150.7만 원**	_____

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, 남는 배우자의 월 소득은?	참고	만 원
본인 국민연금 + 배우자 유족연금의 30% 또는 유족연금만 선택(둘 중 유리한 쪽)	본인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은 30%만 더해짐[96]	_____
기초연금	부부 감액이 없어져 단독 기준, 최대 34만 9,700원[82]	_____
개인연금·주택연금·기타	계약 내용·수익자 확인	_____
1인 생활비와 비교한 부족액	**1인 적정 197.6만 원 · 최소 139.2만 원[12]**	_____

받는 시기와 세금

국민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% 감액, 늦출 때마다 7.2% 증액[67]
사적연금이 연 1,5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16.5%와 종합과세 중 선택[68]

출처 [12] 노후보장패널 · [13] 국민연금 · [18] 소득세법 · [67] 조기·연기연금 · [68] 사적연금 · [74][75] 유동화 · [81] 연금통계 · [82] 기초연금 · [83] 주택연금 · [84] 퇴직연금 · [87] 노인실태조사 · [96] 중복급여

RISK 03 · 사망·상속 ① 가장의 사망 보장

03 내가 없을 때, 우리 가족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?

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는 **9,534만 원**, 평균 소득은 연 7,427만 원이며 그중 **63.9%가 근로소득**입니다. 가장의 근로소득이 멈추면 대출 상환과 생활비는 그대로 남고, **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(민법 제1005조).**

9,534만 원
가구 평균 부채
임대보증금 포함, 2025년 3월 말[40]

7,427만 원
가구 평균 소득(2024)
근로소득 4,747만 원, 63.9%[40]

503만 원
월평균 처분가능소득
연 6,032만 원 ÷ 12[40]

40~60%
국민연금 유족연금
기본연금액 대비, 가입기간별[41]

공적 안전망: 국민연금 유족연금[41]

기본연금액의 **가입기간 10년 미만 40% · 10~20년 50% · 20년 이상 60%**에 부양가족연금(2025년 기준 배우자 연 30만 330원, 자녀·부모 1인 연 20만 160원, 매년 물가 반영 인상)이 더해집니다. 예상액은 가입기간·소득에 따라 달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우리 집 필요 사망보장 계산하기	금액(만 원)
① 남은 대출·부채 참고: 가구 평균 부채 9,534만 원(금융부채 + 임대보증금)	_____
② 자녀 교육·독립 자금	_____
③ 유가족 생활비 = 월 _____ 만 원 × _____ 개월 참고: 가구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약 503만 원	_____
④ 준비된 자산 (예금·기존 사망보험금·유족연금 등)	− _____
필요 사망보장 = ① + ② + ③ − ④	**_____**

핵심 포인트

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습니다.

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(민법 제1019조).
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,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.

④ 준비된 자산을 적을 때 확인할 것

기존 사망보장의 기간
보장이 대출 만기·자녀 독립 시점까지 이어지는지 증권에서 확인

계약자 · 수익자
보험료를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각각 누구인지 확인

RISK 03 · 사망·상속 ② 상속세 현실

03 상속세는 더 이상 '1% 부자 세금'이 아닙니다

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그대로인데 **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16억 원대**입니다. 서울에서는 **2025년 사망자 6명 중 1명꼴(15.94%)**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. 그리고 상속세는 물려받는 **자녀(상속인)**가 냅니다.

6.2%
사망자 중 상속세 과세 비율
2025년, 2010년 약 1%[15]

15.94%
서울 과세 비율(2025)
2010년 4.12%에서 약 4배[15]

29년째
그대로인 공제 한도
일괄 5억 · 배우자 5억~30억[15]

68.8%
상속재산 중 건물·토지
2023년 결정분, 건물 47.6%[94]

서울 아파트 1채 상속 (단순 예시)	16억 원 자녀만	16억 원 배우자+자녀	30억 원 자녀만	30억 원 배우자+자녀
공제 일괄 5억 /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추가	− 5억 원	− 10억 원	− 5억 원	− 10억 원
과세표준 → 세율 적용(10~50% 누진)	11억 → 2.8억	6억 → 1.2억	25억 → 8.4억	20억 → 6.4억
현금으로 내야 할 상속세(약) 신고세액공제 3% 반영	**2억 7,160만 원**	**1억 1,640만 원**	**8억 1,480만 원**	**6억 2,080만 원**

세율표[16] 기준 단순 계산. 금융재산공제·채무·장례비·배우자 실제 상속분 등 미반영.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 확인 필요. **공제가 바뀌어도 '6개월 안에 현금으로' 내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.**

직접 계산해 보기

우리 집 상속세·증여세, 1분 자가진단 + 통합 세금 계산기

재산세·종부세·양도세·취득세까지 한 곳에서.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 기준이며,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우리 집 상속세 재원 계산 (만 원)	1차 상속 배우자 생존	2차 상속 배우자도 사망 후
① 부동산(시가) + 금융자산 + 부모가 낸 사망보험금	_____	_____
② +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	_____	_____
③ − 채무·장례비 장례비 공제 최대 1,000만 원, 봉안시설 500만 원 별도[18]	−_____	−_____
④ − 상속공제 1차: 일괄 5억 + 배우자공제 5억~30억 / 2차: 배우자공제 없음[77]	−_____	−_____
⑤ 과세표준 → 상속세 10%(1억 이하) · 20%(5억) · 30%(10억) · 40%(30억) · 50%(초과), 신고세액공제 3%[16]	_____	_____
⑥ − 현금 재원 기한 안에 쓸 수 있는 예금 등 현금성 자산	−_____	−_____
6개월 안에 더 필요한 현금 = ⑤ − ⑥	_____	_____

1차 상속 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 대상(2차 상속)이 되고, 이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.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.

RISK 04 · 손해 한눈에: 운전·집·일상 배상

04 운전, 누수, 아이와 반려견 일상의 사고가 배상 책임이 됩니다

2025년 교통사고는 **19만 3,889건**, 주거시설 화재는 **1만 554건**이었고, 개물림 사고로 119가 이송한 환자는 5년간 1만 1,152명입니다. **남에게 끼친 손해는 치료비·수리비뿐 아니라 형사 책임 비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**

19.4만 건
2025년 교통사고
하루 약 530건[11]

1만 554건
2025년 주거시설 화재
전체 화재의 27.5%[55]

1.1만 명
개물림 사고 119 이송(5년)
하루 평균 약 6명[58]

비례
일상배상 여러 개 가입해도
실제 손해액 안에서 나눠 지급[20]

이런 일이 생기면	누구의 어떤 책임	확인할 담보
운전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	민사 배상(치료비·위자료·수리비)	**자동차보험**(대인·대물)[18]
12대 중과실 사고, 스쿨존 어린이 사고	종합보험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 가능(합의·벌금·변호사)[18]	**운전자보험**
우리 집 불이 이웃집으로 번졌다	불을 낸 사람의 배상 책임	**화재보험** + 화재배상책임
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 젖었다	거주자(원인 제공자)의 배상 책임	**일상생활배상책임**(증권 주소 기준)[59]
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 /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다	보호자·소유자의 배상 책임	**일상생활배상책임**(가족형 등)[59]

핵심 포인트

민사 배상, 형사 책임 비용, 일상 배상은 서로 다른 담보에서 다룹니다.

일상배상은 여러 개 들어도 실제 손해액 안에서 나눠 받습니다(비례보상). 피보험자 범위가 겹치는지, 이사 후 증권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. 누수 자기부담금은 50만 원(2020.4 이후 가입)입니다[59].

이렇게 점검합니다

운전자보험
형사합의금·벌금·변호사 선임비용,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과 중복 확인

화재보험·배상책임
건물·가재도구 손해와 이웃 피해 배상, 세입자는 임차자배상책임

일상생활배상책임
가족 범위(기본형·가족형), 중복 가입, 증권 주소

RECAP · 숫자로 다시 보기

9개의 숫자 앞에서, 우리 집은 준비되어 있나요?

이 가이드에서 본 숫자들입니다. 각 질문에 **솔직하게** 체크해 보세요. **'모름'이 하나라도 있다면, 그 칸이 보장점검을 시작할 곳입니다.**

1.8분
마다 1명씩 새로운 암 환자 발생

우리 가족 암 진단비는 충분한가?
☐ 준비됨 ☐ 부족 ☐ 모름

20배
같은 항암제, 급여 365만 원 vs 비급여 7,302만 원

비급여 치료비 대비가 되어 있나?
☐ 준비됨 ☐ 부족 ☐ 모름

9,534만 원
우리나라 가구 평균 부채(2025년 3월 말)

내가 없어도 대출이 가족에게 남지 않나?
☐ 준비됨 ☐ 부족 ☐ 모름

약 9%
뇌혈관질환 진료인원 중 뇌출혈 비중(보장 범위 비교용)

내 뇌·심장 진단비의 범위는?
☐ 준비됨 ☐ 부족 ☐ 모름

3,138만 원
치매 환자 1인 연간 관리비용(시설·병원)

부모님과 나의 치매·간병 보장은?
☐ 준비됨 ☐ 부족 ☐ 모름

13.14%
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(2017년 6.55%의 2배)

늘어나는 돌봄 비용을 따져 봤나?
☐ 준비됨 ☐ 부족 ☐ 모름

150.7만 원
부부가 평균 수준 연금을 받아도 매달 부족한 생활비(적정 대비)

연금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나?
☐ 준비됨 ☐ 부족 ☐ 모름

2029년
건강보험 준비금 소진 전망(현행 유지 시)

은퇴 후 내 건보료를 알고 있나?
☐ 준비됨 ☐ 부족 ☐ 모름

2.7억 원
서울 아파트 16억 원 1채, 자녀 상속 시 상속세

6개월 안에 낼 현금 재원이 있나?
☐ 준비됨 ☐ 부족 ☐ 모름

핵심 포인트

숫자를 미리 알면, 그 순간 우리 가족이 고를 수 있는 길을 미리 그려 볼 수 있습니다.

치료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, 집을 팔지 않을 선택지, 일을 쉬고 회복할 선택지. 그 크기를 숫자로 확인해 보는 것이 이 점검의 목적입니다.

WHY · 보장점검이 필요한 이유

보험은 개수보다 겹침과 빈칸을 먼저 봅니다

보험이 여러 개 있어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부족하거나, 같은 보장에 보험료를 두 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. **보장점검은 새 보험을 권하는 일이 아니라, 지금 가진 보험을 '진단'하는 일**에서 시작합니다.

중복 **같은 보장에 보험료를 두 번**

실손·일상생활배상책임은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안에서 나눠 지급(비례보상)됩니다. 직장 단체실손과 겹치면 개인실손(1년 이상 유지 시)을 중지하고,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할 수 있습니다.[52]

공백 **필요한 보장이 비어 있음**

뇌출혈만 보장하는 진단비(뇌혈관질환 진료인원의 약 9%), 간병·배상·운전자 보장 누락처럼 범위가 좁거나 빠진 경우입니다.[31]

과잉 **유지하기 버거운 보험료**

무·저해지 상품은 납입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, 갈아타기는 면책기간 재시작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.[45,48]

노후화 **가입 당시와 달라진 조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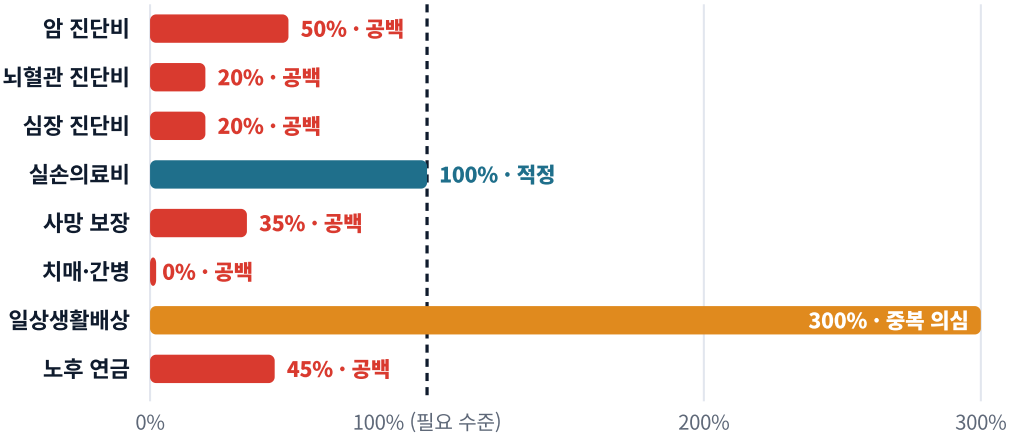
갱신형 보험료 재산정, 80세 만기 등 짧은 보장기간, 1~5세대 실손의 자기부담 구조 차이를 점검해야 합니다.[17]

생명보험 · 손해보험 증권을 한 장에 모아 보세요

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따로 가입해도 보장이 겹치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. 종신·연금·진단비(생보)와 실손·운전자·일상배상·화재(손보)를 한 장에 모아 함께 확인해 보세요.

가상 예시: 칸마다 준비율을 그려 보면 (45세 가장)

가상 예시 · 100% = 소득·가족·부채를 바탕으로 정한 목표 보장액. 그 대비 현재 준비율(%)



1분 셀프 진단

내 보험, 뭐부터 볼까? 3문항 빠른 진단 · 4문항 세부 진단

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시작됩니다. 결과는 내 유형과 먼저 볼 보장 순서로 나옵니다.

출처 [17] 금융위원회 5세대 실손 · [20] 금감원 실손 안내 · [31] 심평원 뇌혈관질환 · [45] 무·저해지 경보 · [48] 부당승환 경보

CHECK · 셀프 점검

체크하지 못한 항목이 보장점검에서 먼저 볼 부분입니다

- [ ] 가입한 보험 수와 매달 내는 보험료 총액을 안다
- [ ]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(1~5세대) 상품인지 안다
- [ ] 일반암과 유사암(갑상선암·제자리암 등)의 지급 기준을 안다
- [ ] 뇌·심장 진단비가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안다
- [ ] 보장 만기(80세? 100세?)와 갱신 시 보험료를 안다
- [ ] 내가 아프거나 없을 때 가족에게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봤다
- [ ] 국민연금 예상액과 노후에 매달 부족한 금액을 안다
- [ ] 부모님 또는 우리 집의 예상 상속세와 납부 재원을 안다
- [ ] 운전자보험·일상생활배상책임의 중복·공백을 안다
- [ ] 나와 부모님의 치매·간병 보장 여부를 안다

혼자 점검할 때 꺼내 둘 것

- 보험증권 또는 「내보험다보여」 조회 결과
- 가족 구성과 월 고정지출
- 앞쪽 계산표에 적은 숫자
- 궁금했던 보험 조항 · 청구 경험 메모

점검 원칙

- 기존 보험 해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
- 유지 · 조정 · 보완의 근거를 숫자로 확인합니다
- 가입 여부와 시기의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

혼자 점검하는 순서

01
가입내역 확인
「내보험다보여」로 전 보험사 가입내역을 한 번에 조회[22]

02
계산표에 적기
앞쪽 계산표에 우리 집 숫자를 적어 보기

03
리스크별 비교
5대 리스크별 필요 보장 vs 현재 보장, 중복·공백·과잉 표시

04
다시 보기
이사·출산·퇴직 등 생애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점검

내 보험 한 장에 적어보기

아는 만큼만 적어도 충분합니다

	보험사 · 상품명	피보험자	월 보험료	만기 / 갱신	주요 보장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
「내보험다보여」(한국신용정보원)에서 본인 인증으로 전 보험사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SOURCES · 출처 1/2

이 자료의 모든 숫자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출처가 있습니다

[1] 보건복지부·중앙암등록본부, 「2023년 국가암등록통계」(2026.1 발표): 기대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
https://www.cancer.go.kr/lay1/S1T639C640/contents.do

[2] 국립암센터 웹진, 「중앙암등록본부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」: 5년 상대생존율 73.7%, 암유병자 273만 명
https://www.ncc.re.kr/webzine/202602/sub_04_view.jsp?tab=tab1

[4] 국가데이터처, 「2024년 사망원인통계」(2025.9.25)
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olicyBriefingView.do?newsId=156721880

[6] 국민건강보험공단, 「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」(2025.12.30), 보험연구원 주간동향 수록
https://kiri.or.kr/PDF/weeklytrend/20260105/trend20260105_1.pdf

[9] 보건복지부, 「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」(2025.3) / 서울경제 보도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00000&bid=0027&list_no=1484959&act=view · 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GQ88Q9IOD

[10] 질병관리청, 「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」(2026.8.26), 약사공론·아시아경제 보도
https://www.kpa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41575 · 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6082606583618460

[11] 경찰청·도로교통공단, 「2025년 교통사고 통계」(2026.4), 장애인복지뉴스 보도
https://www.dwbnews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3231

[12] 국민연금연구원, 「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」(2025.12): 적정 노후생활비 개인 197.6만·부부 298.1만 원, 최소 개인 139.2만·부부 216.6만 원 / 농민신문 보도(2026.1.3)
https://www.nps.or.kr/pnsgdnc/nscvrgdata/getOHAE0002M1.do?hmpgBbsCd=BS20240145&hmpgCd=01&menuId=MN24000898&pageIndex=1&pstId=ZZ202500000000001624 · https://v.daum.net/v/20260103140006377

[13]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(2025.7 기준), 세무사신문 보도 / 국민연금공단 통계
https://webzine.kacta.or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997 · https://www.nps.or.kr/pnsinfo/statistics/getOHAF0115M0.do

[14] OECD 「Pensions at a Glance 2025」 기반 분석,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(2026.7.19)
https://bravo.etoday.co.kr/view/atc_view/19632

[15] 국세청 통계 인용 보도, 머니투데이(2026.9.20 · 9.21): 상속세 과세 비율, 공제 현황, 서울 아파트 평균가
https://www.mt.co.kr/economy/2026/09/20/2026091708361296418 · https://www.mt.co.kr/economy/2026/09/21/2026092023051532205

[16]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「상속세 계산 및 납부」: 세율표·신고기한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255&ccfNo=7&cciNo=2&cnpClsNo=1

[17] 금융위원회, 「5세대 실손의료보험」 보도자료(2026)
https://fsc.go.kr/no010101/86831

[18] 국가법령정보센터: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,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,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, 동물보호법(맹견 책임보험)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·제13조·제22조·제34조·제53조·제60조·시행령 제9조(장례비), 소득세법 제16조·제59조의3·시행령 제25조, 상법 제652조, 민법 제1005조·제1019조·제1112조, 상법 제662조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, 국세기본법(가산세)
https://www.law.go.kr

[20] 금융감독원 안내: 실손 중복가입·비례보상·개인실손 중지제도, 아시아경제 보도(2026.5.19)
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6051915111368313

[22] 한국신용정보원 「내보험다보여」(본인신용정보 열람) / 생명보험협회 「내보험찾아줌」
https://www.credit4u.or.kr · https://cont.insure.or.kr

[23] 보건복지부·중앙암등록본부, 「2023년 국가암등록통계 참고자료」(2026.1.20): 암종별 발생자 수·순위, 평생 발생 위험 41.2%
https://www.cancer.go.kr/download.do?uuid=cfcd35c3-391f-4060-9688-641db3d86cbd.pdf

[26] 보건복지부 발표, 키트루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(4→13개 암종, 2026.1.1 시행), 뉴시스 보도(2025.12.23)
https://www.newsis.com/view/NISX20251223_0003452206

[28] 로봇수술 비용·비급여 현황(보건복지부 자료 인용), 머니투데이 보도(2026.2.5)
https://www.mt.co.kr/thebio/2026/02/05/2026020420194690523

[29] 간병비 부담(보건의료노조 조사 2023)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, 주간경향 보도(2025.10.13)
https://weekly.khan.co.kr/article/202510130600011

[31]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뇌혈관질환·뇌졸중 진료 현황(2018~2022), 병원신문 보도(2023.9)
https://www.kha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5745

[32]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「심장질환 진료 현황」(2018~2022) / 허혈성 심장질환 연령 분포(2019), 메디칼업저버
https://www.hira.or.kr/bbsDummy.do?pgmid=HIRAA020041000100&brdScnBltNo=4&brdBltNo=11037&pageIndex=1 · https://www.mo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1941

[34] 보건복지부,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.9448%(건보료 대비 13.14%) / 과거 추이(2017년 6.55%)
https://www.kha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8627 · https://edaily.co.kr/News/Read?mediaCodeNo=257&newsId=01275926625898480

[35] 국민연금법 개정(연금개혁): 보험료율 2026년 9.5%부터 매년 0.5%p, 2033년 13%, 소득대체율 43%
https://www.christiandaily.co.kr/news/159948

[36] 국회예산정책처, 「건강보험 재정,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」(2026.6.11)
https://www.nabo.go.kr/board/file/bulkDown.do?idx=9299&bid=68

[37] 은퇴 후 건강보험료·피부양자 기준
https://bravo.etoday.co.kr/view/atc_view/18380 · https://bravo.etoday.co.kr/view/atc_view/15084

[38] 신한금융그룹 인사이트, 「보험은 10년만 지나면 비과세라는데 맞나요?」(2026.6.1):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
https://www.shinhangroup.com/kr/archive/insight/extend/detail/32857

[40] 국가데이터처, 「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」(2025.12): 가구 평균 자산·부채·소득
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olicyBriefingView.do?newsId=156733201

[41]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률·부양가족연금(2025),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/ 국민연금공단
https://investpension.miraeasset.com/contents/view.do?idx=22662 · https://www.nps.or.kr/pnsinfo/ntpsklg/getOHAF0072M0.do

[45]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무·저해지환급금 보험 소비자경보(2019.10.23)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73932

SOURCES · 출처 2/2

출처 (계속)

[48] 금융감독원, 보험 부당승환 소비자경보(2026.5.12), 이투데이 보도
https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2583493

[49] (이 판에서는 쓰지 않는 출처입니다)

[50]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「암환자 273만 명 시대,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」(2026.1.20): 연도별 발생자 수, 65세 이상 환자, 연령표준화 발생률
https://www.cancer.go.kr/download.do?uuid=60932fec-9b3c-48f8-aedc-7811aa3f1565.pdf

[52] 금융위원회,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(단체→개인 전환, 개인실손 중지·재개) 보도자료(2018.12)
https://fsc.go.kr/po010101/73428

[55]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25년 화재 통계, 인천일보 기고(2026.9.18)
https://www.incheonil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32167

[58] 소방청, 119 개물림 사고 이송 환자 5년 통계, 데일리벳 보도
https://www.dailyvet.co.kr/news/etc/148059

[59] KB의 생각, 「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」
https://kbthink.com/insurance-guide/daily-life-liability.html

[67] 국민연금공단, 조기노령연금·연기연금 안내
https://www.nps.or.kr/pnsinfo/ntpsklg/getOHAF0056M0.do

[68] KB의 생각, 「사적연금 종합과세 vs 분리과세」(2024): 연 1,500만 원 기준
https://kbthink.com/main/asset-management/pension-n-old-age/kb-goldenlife/kb-goldenlife-240112.html

[69]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장 한도·자기부담 해설(브런치)
https://brunch.co.kr/@jeremysongkr/607

[70] 주혜진 외(고려대 예방의학교실), 「Projection of Future Medical Expenses Based on Medical Needs and Physician Availability」, JKMS(2025.3): 건강보험료율 2024년 7.09% → 2060년 14.39% 전망, 경향신문 보도
https://jkms.org/DOIx.php?id=10.3346%2Fjkms.2025.40.e121 · https://v.daum.net/v/HUG3ToDxSb

[71] 고려대 산학협력단(윤석준 교수)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, 장기요양보험 2055년 보험료율 현행 대비 2.7~3.6배(2.536~3.425%) 전망, 매일경제(2026.7.11)·메디게이트뉴스(2026.8) 보도
https://v.daum.net/v/xDISlnd8v5 · https://www.medigatenews.com/news/1057242637

[73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(소득월액,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비과세소득 제외) /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「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」
https://www.nhis.or.kr/lm/lmxsrv/law/lawLinkContentView.do?SEQ=28&LINKCODE=c004100000 · 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CnpClsMainBtr.laf?popMenu=ov&csmSeq=1141&ccfNo=4&cciNo=1&cnpClsNo=1

[74] 금융위원회,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(정책브리핑 2025.8.19, 보도자료 2025.10, 소비자 Q&A 2025.12.23)
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47821 · 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5451 · https://fsc.go.kr/po020201/85930

[75] 사망보험금 유동화 세제·유의사항, 비즈워치(2025.8.23)·IB토마토(2025.10.22)·보험신보(2026.9.21) 보도
https://v.daum.net/v/KtE1PxUllN · https://www.newstomato.com/ReadNews.aspx?no=1278244 · https://www.insweek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2502

[77]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「상속세 계산 및 납부」·「증여 관련 세금」 / 세택스 「2026년 상속세율·공제 총정리」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255&ccfNo=7&cciNo=2&cnpClsNo=1 · 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93&ccfNo=5&cciNo=3&cnpClsNo=1 · https://setax.kr/inheritance/table

[81] 국가데이터처, 「2024년 연금통계」(2026.8.25):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 91.2%, 월평균 73.7만 원·중위 49.7만 원, 직역연금 278.3만·국민연금 49.1만·기초연금 30.0만 원, 60~64세 미수급 55.6%. 아시아경제·서울신문·서플 보도
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6082511275864372 · https://www.seoul.co.kr/news/society/2026/08/26/20260826008007 · https://supple.kr/news/cmt82yvo4000bq2g80n0q6t1s

[82]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 9,700원·부부가구 최대 55만 9,520원, 뉴스핌 보도(2026.1.28)
https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60128000695

[83] 한국주택금융공사, 주택연금 가입자 15만 명 돌파(2025.12 기준 평균 월지급금 약 127만 원·평균 가입연령 72.4세), 아시아경제(2026.2.4)
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6020415383778888

[84] 2024년 퇴직연금 수령 통계(연금 수령 계좌 13.0%, 일시금 87%), 언론 보도(2025.12.10) / 국가데이터처 「2024년 퇴직연금통계」
https://v.daum.net/v/20251210151336208 · 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735107

[85] KB금융그룹 「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」(2025.9): 노후 적정생활비 월 350만 원·최소 248만 원·조달 가능 230만 원, 노후준비 충분 19.1%, 희망 은퇴 65세·실제 56세. 뉴시스 보도
https://asemgac.or.kr/bbs/bbs/view.php?bbs_no=64&data_no=10614 · https://kbthink.com/content/dam/kb-financial-group/holdings/IBR/05/2025/09/20250280849360/2025KB%EA%B3%A8%EB%93%A0%EB%9D%BC%EC%9D%B4%ED%94%84%EB%B3%B4%EA%B3%A0%EC%84%9C.pdf

[87] 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 「2023년 노인실태조사」(2024.10): 노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(노인부부 176.0만·독거 117.2만 원), 캐어유뉴스 보도(2024.10.29)
https://www.careyounews.org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61 · 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655081

[94] 국세청 통계 인용, 2023년 상속세 결정분 상속재산 중 건물·토지 68.8%(건물 47.6%·토지 21.2%), 이데일리(2024.6.20) / e-나라지표 「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현황」(2025년 과세인원 2만 2,524명)
https://edaily.co.kr/News/Read?mediaCodeNo=257&newsId=02171366638923688 · https://www.index.go.kr/unity/potal/main/EachDtlPageDetail.do?idx_cd=2848

[96]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(본인 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30% 추가 지급),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인용 아시아경제(2026.8.23)
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6082310452844521

유의사항

- 본 자료는 공공 통계·법령과 공개 보도에 근거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, 특정 보험상품의 가입 권유나 보장 내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- 생애 리스크 지도·보장점검 게이지·가상 가계부·세금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도·가상 예시·단순 계산입니다.
-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, 비과세 요건, 세법, 급여 적용 범위는 법령·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